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32



전라남도
여수 초도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CONTENTS

.....

PHOTOSTORY

: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

LIFESTYLE

: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

RESOURCES

: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

PEOPLE

: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NEWS & ISSUE

: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04 호남약도, 손김, 섬 풍경

06 민속신앙, 섬 당제가 전승되는 섬, 초도

07 섬 어른을 위한 온정(溫情) 밥상 문화
바다가 내어준 밭을 기르다. 의성마을 돌미역밭

08 1월부터 12월까지, 초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09 바다생물 인문학 : 가사리(加士里), 참가사리(細毛)

10 초도 대동마을 주민 김진수 시인님

12 섬 살림꾼 초도중계민원처리소 우성진 소장

14 초도 투어 가이드

16 초도마을에서 먹고 잘 곳

18 초도 섬 여행 명소

20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상산에서 바라본 초도 대동항

섬 단어사전

국가어항

#여수 #초도 #대동항 #국가어항

#여수 #초도 #대동항은 #국가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어선활동 지원, 수산물 유통,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가어항은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0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 어선어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회 왕복 이상으로 이상의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지정할 수 있다. 섬의 경우에는 위의 지정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에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나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에는 국가어항 115개소, 지방어항 289개소, 어촌정주어항 627개소, 마을공동어항 2개소가 있다.



도움주신 분

여수시 삼산면사무소
삼산면사무소 초도중계민원처리 소장 우성진
초도 대동마을 주민 김진수 님, 김애자 님, 김시남 님
초도 진막마을 주민 강은숙 님

참고문헌

전라남도, 『호남약도(湖南略圖)』, 1965
정약전, 『자산어보(玆山魚譜)』, 1814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한국수산지 1-1』, 1908

PHOTO STORY

사진에 담긴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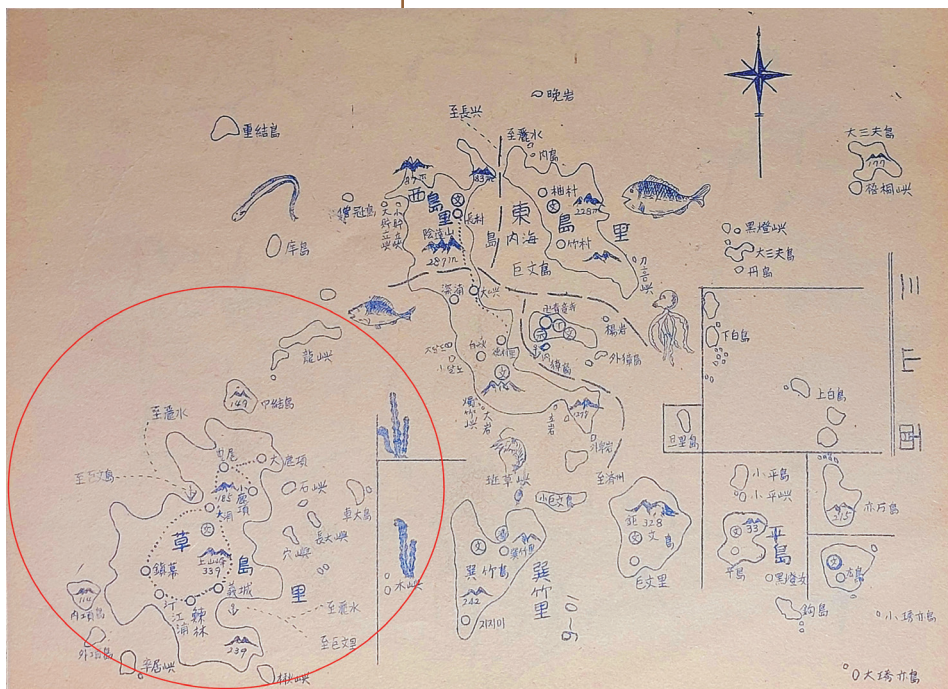
여천군 삼산면 초도

오늘날 전남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초도는 조선시대에 나주목 홍양현, 1896년 대한제국기 돌산군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여수군 삼산면으로 이속된 이래 여천군에 편입됐고, 1965년 초도출장소가 설치됐다. 초도의 섬 면적은 약 900ha로, 유인섬 1개와 무인섬 22개 등 총 23곳에 이르는 군도(群島)이다. 인구는 2024년 1월을 기준 220세대, 369명이며, 법정리는 초도리, 행정리는 대동리, 의성리, 진막리 등 3곳이다.

1965년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호남약도』에는 거문도를 중심으로 초도와 손죽도, 평도, 광도, 대삼부도, 등 작은섬이 그려졌다. 아울러 바다에서 나는 주요 산물들과 산지, 지명 등 다양한 정보가 언급되었다.

초도는 섬 면적이 서도(西島)에 버금갈 정도로 커서 당시 사람들에게 주요한 섬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섬 관련 정보를 좀 더 살펴보면, '대동마을'과 '의성마을' 외에도 '정강포(정강마을)' 등 주요 마을과 더불어 점차 형으로 상산봉(上山峰, 339m) 능선이 그려져 세밀한 정보가 언급됐다. 인근 해역에는 물고기와 해조류 그림이 그려져 풍부한 수산자원이 분포했음을 보여준다. 타임머신을 타고 60여 년 전 지도로 만나는 초도.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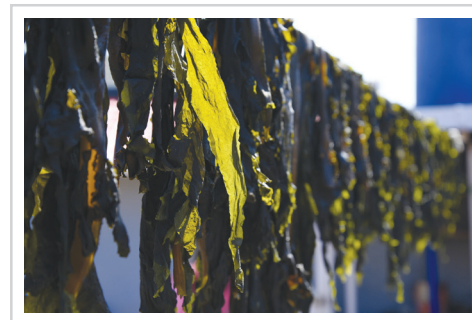
호남약도(湖南略圖)
여천군 삼산면 초도 (1965년)



3월 봄별 아래 자라난 갯바위 돌김. '손김'으로 거듭나다

한 해 동안 바람과 바다, 햇볕을 자양분으로 삼아 무럭무럭 자란 돌김. 일렁이는 물결 따라 초도 주민 품에 안겼다. 흩어져 조각난 물김은 따스한 별 아래 서로 엉기어 한 몸이 되더니 정성 깃든 손김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수시 #삼산면 #초도 #손김 #특산물 #건장김 #대나무밭



대동마을에서 건조중인 돌미역



초도에는 섬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와집이 많다



마을 문서를 통해 살핀 80여 년 전 대동마을 자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당제가 전승되는 대동마을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민속신앙인 당제가 전승되는 섬, 초도

초도 대동마을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민속문화이자 신앙이었던 '당제(堂祭)'를 매년 정월 초하루(음력 1월 1일)부터 이틀간 거행해 왔다. 초하루 당일에는 웃당(上堂), 이튿날은 아랫당(下堂)에서 각각 당제를 지냈다. 제의를 마친 다음날 아침 제주는 마을에 자리한 사장 터에서 '헌식제'를 지냈다. 헌식제는 마을 제사에 모여든 잡신들을 위로하는 의식이었다. 그렇게 헌식제까지 마치면 *매구를 치기 위해 한패는 마을에서 산 지에 가까운 윗마을, 또 다른 패는 바닷가에 접한 아랫마을로 나뉘었다.

그렇게 구성된 두 패는 보름 동안 가가호호(家家戶戶) 집들을 방문하면서 샘굿부터 마루굿, 방굿, 철용굿, 마당굿 그리고 집 뒤편길로 돌아가서 치는 뒤편굿까지 총 열두 마당으로 구성된 매구를 쳤다. 점심참을 먹을 시간에 이르러 매구패가 부잣집으로 가면 이들을 위해 큰 상으로 술상과 밥상을 차려주었다. 저녁이 되면 다른 집에 가서 마무리굿을 쳐주고 저녁밥을 얻어먹고 헤어졌다가 다음날 다시 만나 굿을 쳤다. 한마을 한뜻으로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섬 주민 모두에게 축제였다.

*매구 : 풍물



초도 대동마을 웃당



섬 어른들을 위한 온정(溫情) 밥상 문화



온정밥상

2023년 2월경 겨울 한파가 섬을 강타하면서 추위가 엄습해왔다. 강추위를 피해 대동마을 경로당으로 모여든 어른들은 겨우 내 온기를 찾을 수 있었지만, 식사가 문제였다. 지자체에서 약간의 쌀과 반찬이 지원됐지만, 마을 어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받지만, 어른들은 스스로를 위해 쓸 줄 몰랐다. 섬에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마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겨울 돌풍에 여행객이 결항하는 날이 잦아 장보기도 어려웠다.

당시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던 김진수 이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급기야 SNS에 사정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사)섬연구소(강제운 소장)에서 여기저기 소식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냈고, 곧 우편 택배를 통해 음식과 식자재가 전해졌다. 이러한 관심이 계속되면서 적막강산처럼 고요하고 쓸쓸했던 섬마을 경로당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후 부녀회를 비롯한 마을 자치 기구 회원들도 나서 화합을 위한 비빔밥을 만들어 섬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는 미담으로 알려져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금도 초도 밥상문화는 계속되고 있다.

바다가 내어준 발을 기르다 의성마을 돌미역밭

매년 2, 3월 무렵 섬 동쪽에 위치한 의성마을 해안에서는 섬 주민들이 돌미역을 채취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크고 작은 바위와 돌 사이에는 돌미역뿐만 아니라 가사리나 파래처럼 연·근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자란다. 수산자원 채취 작업은 보통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간조대에 활발히 진행된다.

돌미역 채취 과정을 좀 더 살피면, 주민들이 뿌리에 가까운 밑동을 제외한 줄기 부분을 잘라낸다. 이는 해초를 소중한 마을 수산자원으로 인식, 계속해서 활용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주민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 기후 현상과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물이 멸종에 이르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데 좋은 모범 사례이다.



초도 의성마을 돌미역밭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초도 바다와 밭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해산물

돌김

1~3월

보말

8~10월

돌미역

2~3월

거북손

9~10월

불등가사리

4~5월

문어

10~12월

꾸죽(빨소라)

5~6월

학꽂치

10~12월

밭작물

대파

2~5월

노랑고구마

6~11월

참두릅

3~4월

보리

11~5월

상추

3~6월

배추

11~4월

쪽파

4~7월

바다생물 인문학

가사리(加士里),
참가사리(細毛)

가사리는 여러해살이 해조류로 비교적 수심이 깊고 조류 소동이 원활한 바다에서 자라 여름철 번식기를 지나 이듬해 봄에 이르러 새싹이 된다. 2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섬이 있는 풀섬 ‘초도’. 배를 타고 나가 야 닿을 수 있는 술대섬, 진대섬, 동굴섬 등지에는 돌미역과 꾸죽(빨소라), 해삼, 거북손, 가사리와 같이 먼 바다에서 나는 바다생물이 있다. 이 가운데 가사리는 섬 밥상을 꾸미는 식재료 외에도 흙벽에 덧대어 칠 해서 민가를 보호하는 건축 자재로도 활용되는 등 섬 주민들에게 특별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1814년 손암 정약전이 저술한 바다생물 백과사전인『자산어보(玆山御譜)』에서도 가사리에 관한 내용이 종류별로 소개됐다.

종가사리(驢加菜)는 그 크기가 7, 8치 정도이고, 뿌리에 내뿜 높이 나 있다. 앞끝은 갈라진 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놈도 있다. 모양은 금은화(金銀花)의 꽃망울과 비슷하고, 속은 비어 있다. 부드럽고 미끄러우며 국을 끓이는 데 좋다. 번식대(帶)는 석기생(石寄生)의 위에 있다.

섬이가사리(蟾加菜)뿌리와 줄기, 가지가 갈라져 번식하는 모습이 석기생(石寄生)과 비슷하다. 그러나 모두 섬세하고 깔깔하여 소리가 난다. 빛깔은 붉다. 햇볕에 오래 말려두면 노랗게 변하며 매우 끈끈하고 미끄럽다. 이것을 이용하여 풀을 쓰면 밀가루와 다름이 없다. 번식하는 지대는 종가사리와 같다. 일본인은 종가사리와 이것을 사기 위해 상선(商船)을 보낸다. 혹은 배와 비단에 바르는 데에도 사용한다고 한다.

우모초(海凍草)는 모양이 섬이가사리(蟾加菜)를 닮았다. 단 몸이 납작하다. 가지 사이에 잎이 있는데, 매우 가늘고 빛깔이 보라색으로 특이하다. 여름에 삶아서 우무 고약을 만들면 죽이 굳어져서 맑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씹을 만한 음식물이 된다.

1900년대 초 근대 시기에 제작된 한국수산지에서도 가사리에 관한 언급이 이뤄졌다.

“가사리는 남부 경상도와 전라도 각 근해 도서 등지에서 생산된다. 주요 산지는 전라도에서 진도, 완도 소안도, 제주도, 추자도 등지로 초봄 무렵 간조선 상의 암초에서 착생한다. 낫이나 조개껍질로 긁어내어 이를 모으고 건조하여 목포나 부산 등지로 수송, 일본 상인에게 매도한다. 일본 상인들은 이를 씻어 말리는데 대부분은 그대로 오사카에 수출한다. 씻어 말린 가사리는 지붕 회반죽 또는 기타 벽체 도장용으로 사용한다. 품질은 진도산을 최상으로 치는데, 일본 내에서 우등품인 히젠(肥前) 고토산(五島) 못지않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초도 대동마을

김진수 시인님

초도에 가면

김진수

가슴에 별이 진 사람 초도로 가라
 여수항 뱃길로 48마일
 삼산호, 신라호, 덕일호, 뱃리호, 순풍호
 데모크라시, 줄리아나 오가고
 뱃길 빨라질수록 발길은 멀어도
 해초처럼 설레는 낭만은 있다.

이슬아침 소바탕길로 상산봉에 오르면
 낮고 낮은 햇살에도 퍼덕이는 금비늘
 희망은 가슴 터질 듯 수평선에 이르고
 달빛 수줍은 갯바람길을 따라
 은하수 시거리 이야기꽃 정다운
 초도, 그 아름다운 품속에 가면
 아직도 총총한 별이 뜬다.

시집 『좌광우도』(2018) 중에서



Q2 초도를 대표하는 마을 역사·문화자료가 있는지?

A2 초도에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보존해 온 마을 문서나 고문서 자료가 많았다. 1970년 차반 무렵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다수 자료가 소실되어 그나마 남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기성회 찬조 방명록』은 초도에서 발생한 계포(契浦)라는 어업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헌자료다. 오늘날 어촌계로 볼 수 있는 계포는 섬과 바다라는 공간에서 어업에 관한 주민 간 협력과 믿음을 전제에 둔 어촌 공동체였다. 여기서 계포는 일종의 어촌계원을 묶는 단위였는데, 계포장과 계포원으로 구분해서 총 12번까지 두었다. 매년 반별로 초도에 접한 구무섬, 소암도, 건전섬 등 무인도에 자생하는 해초류를 채취하거나 지선 어장을 활용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건어 마을 운영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다음은 4284년(서기 1951년)에 쓰인 『회의록』이다. 마을 정기총회에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회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 마을 운영에 관련된 회계 기록도 보이는데, 얼마나 투명하고 명확한 마을자치를 실현했는지 알 수 있다. 월 별 회계 내역서는 찬조 금액에 따른 주민 등급과 호수, 금액, 등이 적혀있다. 실제로 마을 운영을 위한 자치 회비 총계는 12만 원 정도였는데, 1등급은 1호수(가구)에 25,000원, 2등급은 20,000원, 3등급은 16,000원을 냈다. 마을 회비를 많이 내라고 하더라도 다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듯한데, 이렇게 많이 낸 이유는 뭘까? 그만큼 마을을 위해 기여하는 부자가 많았고, 또 이를 존경하는 마을 구성원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이밖에 초도에는 특별한 섬 언어자료가 있는데, 순우리말 지명이다. 여전히 섬 주민들은 ‘수지끝’, ‘낭끝’, ‘당머리끝’, ‘석머리 끝’, ‘군바구’, ‘신들메’, ‘유리대이’, ‘치끝’ 등을 쓴다. 다음은 주민 간에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나눌 때 택호(宅號) 대신 별호(別號)를 쓰는 소통 문화다. 주민 개개인이 지닌 말버릇이나 습관, 성격 등을 소재로 별호를 지었다. 실제로 ‘짜귀’, ‘월남의 달밤’, ‘라지오네’, ‘참빗쟁이’ 등이 있다.

Q3 섬에서 성장하며 겪은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이 있다면?

A3 초도는 예로부터 고기잡이가 활발한 섬이었다. 어부들은 이를 위해 출항을 준비하고 제사를 모셨는데, 대동마을 해안 포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풍어를 기원하는 선주들은 저마다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성한 음식들로 고사상을 차리고 용왕신을 모시는 의례 행위로 제사떡을 바다에 던지곤 했다. 그러면 소문을 듣고 온 동네 꼬마들이 고사떡을 얻어먹으려고 배 밑을 서성이며 저마다 두 손을 받쳐 떡을 얻어먹곤 했다.

겨울에는 아이들이 연날리기 놀이를 즐기곤 했는데, 찬 기운이 스미는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고기잡이를 위해 출항을 준비하는 집마다 오색기를 매단 봉깃대를 세워두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면 꼬마들이 작은 연을 날리며 놀다가 특정한 봉깃대에 일부러 걸리게 했다. 깃대가 높이 세워진 집일수록 연이 걸릴 확률도 높았는데, 연이 많이 걸릴수록 풍어를 이룬다는 설이 있었다. 그래서 꼬마들이 저마다 걸린 연줄을 떼내어 집에 찾아가면 어른들이 창호지를 온장으로 한 장씩 주셨다. 그렇게 받은 창호지 한 장으로 연을 네 개나 만들 수 있었다. 어른들은 여기에 배에서 쓰던 100미터짜리 그물줄 한 묶음과 대나무 하나를 엮어줬다.

Q4 섬 발전을 위해 석사논문을 썼는데, 초도가 섬 여행지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A4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에서도 유명한 곳인 백도를 가려면 여수항에서 배를 타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고흥 녹동항에서 출발하면 적어도 30분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코스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다. 조선시대에 흥양현(興陽縣)에 속했던 초도를 염두에 두면 인문학 콘텐츠를 접목한 섬 유람 여행 코스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고흥 녹동항이나 거금도를 중심으로 둔 여객선 항로 개설과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도 앞으로는 고흥군을 기회의 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초도에 해양 민속촌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도만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겠다. 초도는 작은 무인섬을 보유한 군도의 대표섬으로, 유람선을 운항하여 갯바위 해조류 채취 체험 교육을 하면 주민 소득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사랑하는 초도가 많은 국민에게도 사랑받는 섬이 되길 바란다.

Q1 초도에서 추천하는 섬 명소가 있다면?

A1 초도를 대표하는 섬 여행 명소는 상산봉이다. 공기가 좋고, 산 곳곳에 샘이 열두 개나 있으며, 탐방 코스 중간에 마을이 있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도 여행객이 트레킹을 한다면 탐방로를 걷다가 목이 마르면 샘물로 갈증을 달랠 수 있다. 또 다른 마을에 도착하면 섬막걸리를 맛보거나 점심을 먹고, 저녁에 이를 무렵 다시 대동마을로 돌아와 저녁밥을 먹는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섬 해안으로 난 갯가를 도는 거리는 21km, 상산 주변으로 개설된 도로 코스는 7.5km, 산 능선 길은 4km 정도이다. 소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런 코스가 잘 운영되면 초도가 충분히 매력적인 섬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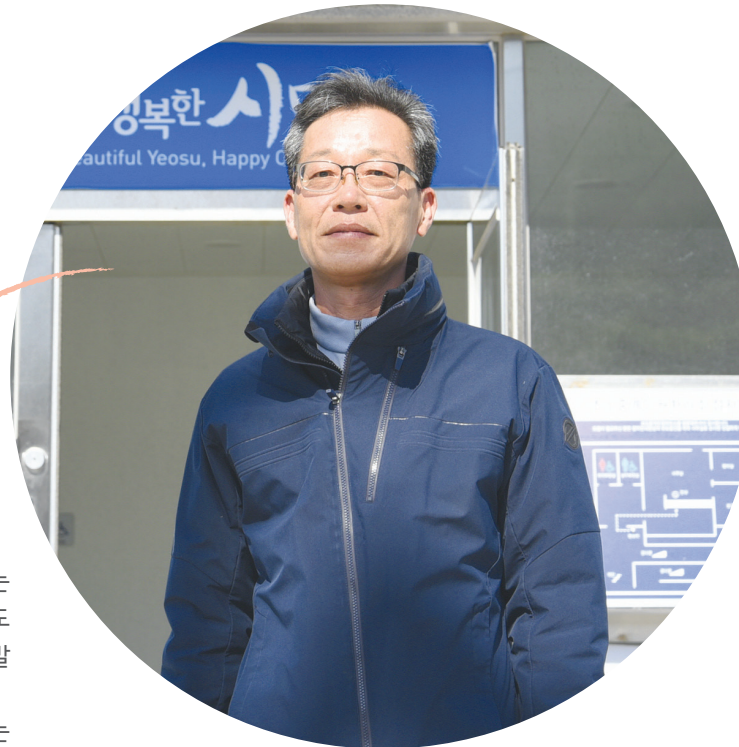
상산봉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훤히 트인 풍경을 만날 수 있고, 등산로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산에는 특별한 자원이 있는데, 그간 주민들은 이곳을 ‘피난길’, ‘비단길’, ‘비단굴’ 등으로 불려왔다. 바위 틈으로 난 굴을 지나면 대풍리나 의성리에 이를 수 있다. 상산봉에 ‘뽕주구멍’이라는 곳도 있다. ‘뽕주’는 박쥐, ‘구멍’은 굴을 뜻하는 섬 사투리로 바위틈에 난 자연굴이다. 면적이 4, 5평 정도인데, 여름 무더위를 피하는 쉼터로 좋다. 이밖에 초도에는 매력적인 지명을 지닌 굴이 많은데, 섬 북쪽에 위치한 큰사슴목에 ‘수달피굴’이 있다. 이렇듯 초도는 산과 해안을 결합한 형태로 트레킹 코스 기획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지명을 적극 활용하면 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좋겠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 살림꾼 초도중계민원처리소

우성진 소장



Q1 평소 섬 지역에서 근무하자면 날씨 외에 다양한 영향을 받을텐데 어떤지?

A1 1995년 3월 무렵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니 30년째다. 전산직 계통이라서 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섬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 삼산면에 속한 손죽도와 초도, 거문도를 거쳤다. 섬 지역에서 근무하며 날씨 영향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면 교통 문제가 가장 크다. 지금 이 시기는 높은 파도로 인해 여객선 결항률이 높은 편이다. 3, 4월에 접어들면 안개주의보가 기다리고 있다. 일교차가 큰 날 아침에는 안개가 피어올라 배가 안 뜨는데, 비나 바람을 예고하는 주의보는 있으나 안개주의보는 없다. 이밖에 섬에 다니기 어려운 시기는 겨울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6개월 정도이다. 그나마 다니기 수월한 계절은 여름철인데, 7, 8월을 합한 2개월이 여기에 속한다. 9월에 이르면 태풍이 불어오니 말이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는 날씨가 맑고 바다도 비교적 잔잔해서 좋다.

여수지역은 행정구역상 육지와 섬이 혼합된 형태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 같은 섬이라도 선호하는 곳과 어려워 하는 곳이 따로 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점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교통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곳 일수록 근무를 기피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다. 여수시에서 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화정면과 삼산면이 있다. 전자에 속한 곳은 여자도나 안도 등으로 대개 선호한다. 하지만 후자인 삼산면 권역은 먼바다에 속해서 날씨 영향으로 선박 결항률이 높아 어려움이 있다.

Q2 초도를 방문하는 섬 여행자들이 많은지?

A2 초도에서 근무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섬 여행을 목적으로 찾는 방문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산악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기업인 블랙야크에 속한 산악 동호회에서 100대 명산으로 초도 상산봉을 지정한 후 등산객 방문이 늘었다. 초도와 이웃하는 손죽도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산악인들은 상산봉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전망을 배경 삼아 인증샷 찍기가 인기다. 대중적인 섬 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이라고 하기에 아쉬움이 있지만, 섬 여행만을 즐기는 매니아층을 꽤 만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전국 섬 지역에 있는 100대 명산을 찾거나 남해안에 있는 섬 50곳을 방문하겠다는 여행객 등이 있다.

초도중계민원처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년 한 번씩 탐방로 정비 차원에서 풀베기 작업을 해오고 있다. 제주도 올레길에 흥행하면서 전국 섬 지역 곳곳에 올레길이 새로 조성됐다. 그런데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섬이라면 관광할 것만, 이와 반대인 곳이라면 어떨까? 잡초나 넝쿨이 길다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 초도에서 근무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제초 작업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매년 5월, 9월 정도로 나누어서 두 번 정도는 해야 탐방길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당장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있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부담감이 큰 편이다. 국민들이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육지에는 문화관광이나 숲, 정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설사들이 있는데, 섬 지역에는 이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여행객들이 오면 맞이하거나 인솔하면서 섬 명소를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들이 없으니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나 어촌계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평소 인적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은 일반 여행객이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섬을 홍보하고 여행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Q3 최근 들어 섬으로 귀향·귀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초도는 어떤 상황인지?

A3 전반적으로 섬으로 귀어·귀촌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초도에는 이곳을 고향으로 둔 출향민들이 귀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섬 인구가 늘어나니 마을에 활력도 생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더없이 좋다. 다만 원주민과 귀향 주민 각각 사고방식이나 생활 문화가 약간 달라서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육지에서 생활했던 주민은 아무래도 넓은 지역에서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경험한 점이 많다 보니 섬에 정착하고 나서 어떤 변화를 위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섬과 마을 등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오며 섬 풍경과 관습에 익숙해진 원주민들은 변화보다는 보존, 즉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런 까닭에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 서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려는 노력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Q4 초도가 삼산면을 대표하는 섬 여행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A4 초도에 오는 여행객은 보통 당일 여행을 선호한다. 그런데 섬을 한 바퀴 돌고도 뱃시간이 꽤 남아 무료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 예전과는 달리 육지도 그렇지만 초도 여객선터미널도 매표 시간이나 선박 입·출항 시간을 제외하면 대합실 문을 잠그고 한다. 실내에 설치된 물품 분실이 우려되니 관리중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런 연유로 방문객들이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마땅찮은데, 이들을 위한 휴게 쉼터와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사 문제다. 섬 지역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기 어렵다. 미리 문의하지 않고 섬에 들어와서 밥 달라고 문 두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섬 주민들도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 수시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충분한 수요층이 있으면 식당 운영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다만 초도나 손죽도 등 섬에서 지내는 주민 요리 솜씨가 좋으니 섬 요리 문화를 진흥하면 좋겠다. 식자재도 섬에서 나는 산물을 중심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현대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메뉴로 선보이면 국민적인 관심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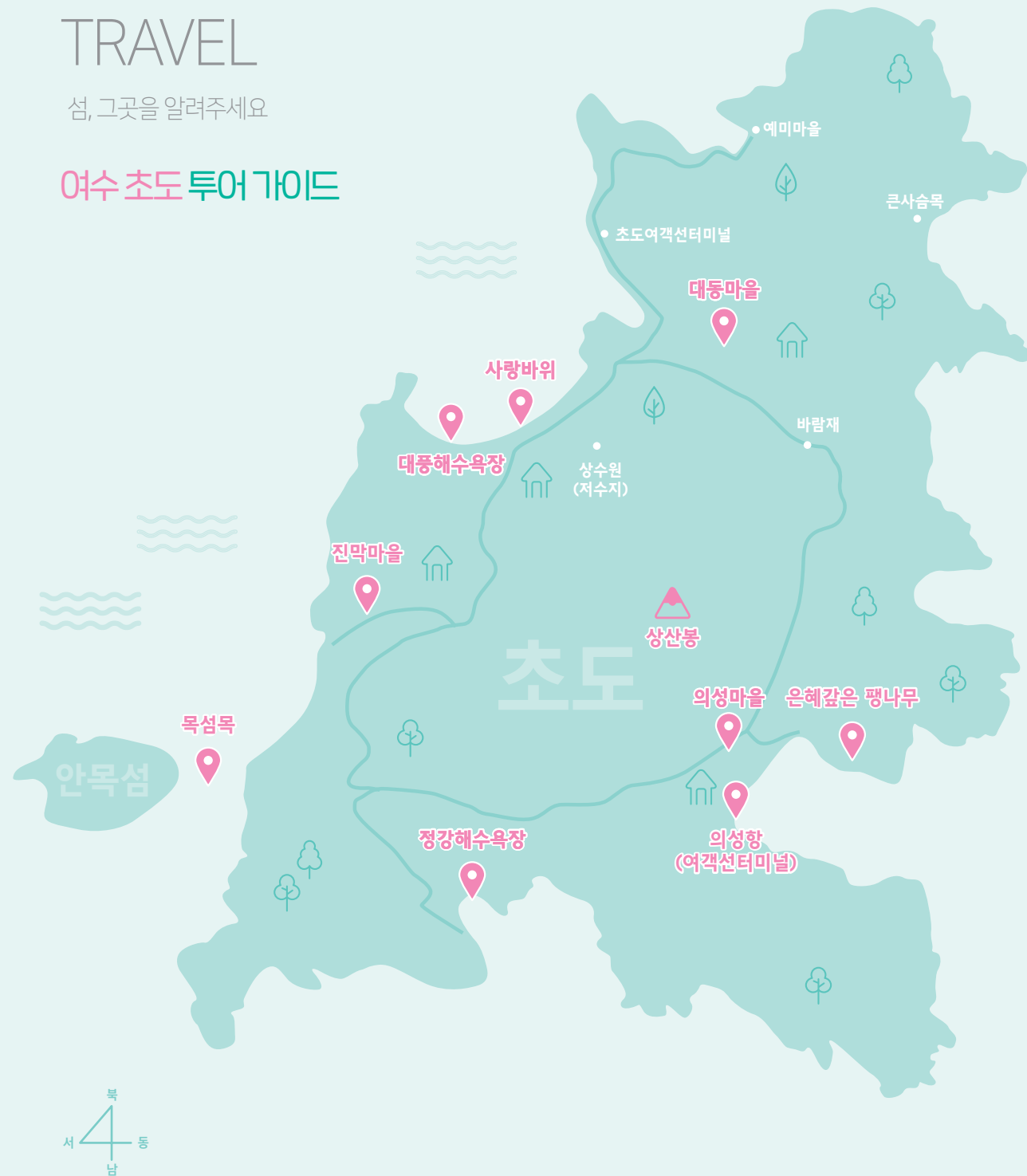
잠자리 공간도 요즘 방문객들의 성향이나 니즈를 고려해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 기존의 농·어촌 민박 운영 정책을 보면 숙박시설 신축보다는 애초 민가를 개조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보니 여행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방이 오밀조밀 붙은 경우가 많은데, 젊은층은 물론이고 연세 드신 어른이라도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주민들이 생업에 전념하는 가운데 숙박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국내 여행 정책 방향 설정과 사업 모델 선정 등에 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섬 지역의 경우에는 내륙과 다른 지리·문화적 특성이 있으니 조심스러운 접근과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과 여행객 또는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민 구성원 간 신뢰를 쌓기 위한 공동체 조직이 중요하다. 관광 영역 밖의 문제지만, 날이 갈수록 섬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이런 공동체 문화를 허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정착 인구를 맞이하고 늘릴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여수 초도 투어 가이드



웨스틴그린호(쾌속선)

항차	여수 → 초도		초도 → 여수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07:50	09:40	12:30	14:20



평화페리11호(차도선)

항차	녹동 → 초도(대동)		초도(대동) → 녹동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07:00	08:50	14:30	16:20

여수연안 여객선터미널

주소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엘에스윙핑_웨스틴그린호(쾌속선) 061-662-1144

운임 여수 → 초도 (성인 1인 20,900원)

* 차량 선적 불가, 유류할증료 변동으로 인한 운임비 수시 변동

* 초도에서 출발하는 평일 / 주말 운항 시간은 변동이 있으니 미리 확인은 필수!

녹동신항연안 여객선터미널

주소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66-4

평화해운_평화페리11호(차도선) 061-843-2300 *매주 월요일 정기휴일

운임 녹동 → 초도(대동) (성인 1인 20,200원)

* 차량 선적시 매표 먼저 진행 (승용기준 54,800원)

* 초도 마을버스 운행(여객선 출발·도착 시간에 맞추어 운행)

여수 초도 숙박

마을	상호명	주소	연락처
대동	대동민박	여수시 삼산면 대동길 1	061-665-3978
	무작정민박	여수시 삼산면 대동해안길 14	010-5170-8588
	두산민박	여수시 삼산면 초도로 645	010-3566-6346
	초도 몽돌쉼터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581	010-6201-4753
진막	초도스쿨펜션	여수시 삼산면 진막길 28	010-8221-7499
	초도다라주민박	여수시 삼산면 진막안길 6	010-3625-8632
	진막 해녀촌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200-5	010-8813-8633
의성	에덴민박	여수시 삼산면 대동해안길 13-3	010-2868-3563

여수 초도 섬 여행 명소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_ 상산봉

초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고도가 339m에 이른다. 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이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거문도와 백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볼 수 있다. 대동리 초도여객선터미널에서 출발하면 바람재 - 상산봉 정상 - 정강재 - 해안일주도로를 통해 다시 여객선터미널로 돌아오는 약 8km 탐방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산행과 함께 섬 둘레길 코스를 겸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환영받는 여행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

찾아가는 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126(초도여객선터미널)

2_ 대풍해수욕장

초도 대동마을과 진막마을 중간에 길이 500m, 폭 30m에 이르는 곳으로, 검은 몽돌이 분포하는 특별한 해수욕장이다. 해변 한쪽으로 소나무숲이 우거져 나무 그늘로 삼기 좋다. 아울러 여름 피서객의 편의를 돕는 샤워장과 화장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이나 친구 외에도 단체 여행객이 야영을 하기에 더없이 좋다. 아울러 해수욕장 입구에는 대동마을 주민이 돌로 쌓은 고인돌 모양의 인상적인 조형물이 있다. 또 해수욕장에는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생겨 독특한 형태로 주목받는 바위가 있는데, 주민들은 '사랑바위'라 부르고 있다.

찾아가는 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 2775



3_ 의성마을 은혜굴은 팽나무

초도에서 동쪽에 자리한 의성마을은 길이 150m, 폭 20m 규모로 형성된 몽돌해변에서 자생하는 풍부한 돌미역과 해조류가 돋보이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아열대에 속한 온난다습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소나무를 비롯하여 팽나무가 잘 자라기도 하는데, 항구 초입에는 팽나무 한 그루가 자리한다. 이 나무와 관련된 설화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1959년 사라 호 태풍이 섬을 강타하면서 팽나무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을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부가 술을 마시기 전, 먼저 한 잔을 따라 나무 밑동에 부어주자 2년 후 팽나무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처지에 놓였는데, 팽나무 목신(木神)이 꿈에 나타나 한약방 한 곳을 알려줬고, 그곳을 찾아가 약을 먹은 후 나았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철 그늘이 있어 주민은 물론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쉼터이다.

찾아가는 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의성길 16-1(의성경로당)



4_ 초도 진막마을 목섬목

초도 진막마을과 결을 가까이하는 해안에는 무인섬, 안목섬이 있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큰 사리 물때에 이르면 간조시 바다갈라짐 현상이 나타난다. 바다가 갈라지면 섬과 섬 사이에 지대가 높은 길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 원활한 왕래가 가능하다. 특히 이 구간은 조류 소통이 좋아 뽕소라나 고동, 해삼, 문어, 게 등을 비롯해 청각이나 가사리 등 해조류도 풍부해 해양 생물 체험을 하기에 용이하다. 안목섬 해안선은 갯바위로 이뤄져 있어 낚시하기에 좋다.

찾아가는 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진막마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초도 섬 주민들이 쓰는 도구를 보면 섬이 보인다!

낚시용품 종합세트

소장자: 김시남 님(78세)

내 이름은 김시남. 섬에서 태어난 덕분에 인생 전부가 바다였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손낚시를 제일 좋아한다. 간단히 채비한 낚시줄을 돌돌 감아 준비를 마치면 배에 올라 바다로 던져 고기를 잡는다. 이 낚시줄을 감았다가 풀어주면 줄이 자글자글 돌아간다. 낚시집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채비 용품을 파는 모양인데 바다는 수심이나 조류, 암초와 같은 요인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니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 보물 창고를 보면 온갖 낚시도구로 가득하다. 온갖 낚시 장비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릴낚싯대는 우리 손자들이 놀러 오면 재미로 하라고 주는 것. 하지만 나는 무조건 손낚시다. 그래서 내 애장품은 '낚시용품 종합세트' 오토바이와 배가 있으니 바다에서 마을을 오가기 편하다. 낚시는 5월 중순부터 섬을 찾는 물고기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연중 쉬는 날이 없다. 옛날에 풍선배가 돛을 달고 다니던 시절, 내 나이 13살 무렵 낚시를 시작했다. 장성한 청년이 되서는 원양어선을 15년 정도 탔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라스팔마스와 멕시코 등 전 세계를 돌면서 고기를 잡았다. 바다에서 그물을 끌고 다니는 트롤 어선에 갑판장을 맡았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이 총 30명쯤으로, 2개조로 나뉘어 교대로 일을 반복했다. 그렇게 돈을 벌며 부산광역시에서 40여 년간 숙박업을 하다가 섬에 귀향했다.

1



해초 바구니

소장자: 김애자 님(87세)

내 이름은 성이 '김'가(家)에 이름은 애자. 섬에서 태어나 초도를 평생 고향으로 알고 쪽 살아왔다. 가끔 볼 일이 있으면 여수를 오가지만, 섬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제 살림하며 지내니 공기 좋은 섬에 와서 살겠다고 아예 와버렸다. 평소 소중히 여겨온 애장품은 '해초 바구니'다. 예전에는 바다 환경이 맑고 깨끗해서 시꺼먼 해초가 2미터씩 자랐다. 그 시절엔 남도 사투리로 차두, 푸대라 불리는 비닐 소재 용기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만든 바구니를 곧잘 썼다. 바구니에도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었는데, '돌섬바구니'가 명품이었고, 형태나 기능에 따라서 등개미, 감채 바구니 등이 있었다. 바구니는 주로 갯바위에서 따는 김이나 미역, 가사리를 담는 데 썼다. 해초 바구니와 세트로 팔려오는 게 갈쿠인데, 이 도구는 돌김을 뜯을 때 쓰는 손 도구이다.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쓰는 땔나무를 소재로 자루를 만들었다. 그래서 갈퀴랑 김틀에 해초 바구니까지 더하면 비로소 해초 채취용품 3종 세트가 완성된다.

2

물질 도구

소장자: 강은숙 님(64세)

대동리에서 진막마을에 시집와서 살다가 스물네 살 먹어 해녀일을 시작했다. 초도에 속한 마을마다 어장 구역이 정해져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이웃하는 어장으로 넘어갈 수 없다. 마을마다 주어진 어장 안에서 해 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진막마을은 초도 해안과 가까운 목섬 갯바위에서 나는 바닷 것을 잡는다. 보통 전복과 해삼, 빨소라로 불리는 꾸죽, 돌김, 돌미역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해초 중에서도 김이 잘 나지 않았다. 가사리나 톳 같은 해초류는 김 양식하는 사람들에게 잡초지만, 우리 해녀들에게 소중한 자원이다. 초도에는 예전부터 해녀들이 많이 정착해 살았는데, 지금도 각 마을마다 대 여섯명씩은 남아 있다. 해녀 어업은 해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정도 하는데, 한 달을 기준으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한다. "물질 나가서 잡은 것들은 여기 마을 어촌계에서 관할을 하니깐 하나 모태서 판매까지 해. 공동으로 채취 작업해서 위판장으로 내서 벌어들인 수익도 똑같이 나누고. 어촌 공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해녀 공동체가 의식이나 질서 면에서 아주 탄탄해. 수익 배분율도 예전에는 어촌계에서 7, 해녀 개인이 3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 해녀가 7, 어촌계가 3. 사람 귀한 섬이 됐고, 해녀들이 고생하니 아무래도 수익을 더 가져가는 게 옳지 않을까?" 초도군도에 전복이나 해삼, 보말, 거북손같은 먼바다 패류나 해초류가 많아서 나잠어업이 발달했다. 쿠로시오 난류와 내만권 해류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 초도. 그래서 빨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빨물이 일어난다는 건 영양분이 골고루 퍼질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이 덕분인지 다른 지역보다도 유난히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왔다. 거문도나 제주도에서 나는 전복은 대부분 말전복으로, 전복 껍데기를 보면 출수공이 세 개다. 하지만 완도나 초도는 참전복이고, 출수공이 5개. 말전복에 비해 크기는 더 작지만, 살이 단단하고 맛이 좋다. 해녀어업이 발달한 데에는 섬 환경이 좋은 덕이 크다.

3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가고 싶은 섬 신안 대기점도에 어복버스 방문하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어촌·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복버스(어촌복지버스)'란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리적 특성상 육지 이동이 불편한 섬에 방문해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이·미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 신안 대기점도에 있는 기점경로당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전라남도 6개 시·군, 20개 섬에서 3월 8일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운영합니다.

어복버스 서비스 과정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를 목표로 우선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사전 대면 문진 후 화상 진료를 진행하여 약 복용 안내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기점도 기점경로당에서 열린 어복버스 서비스 현장에서는 앞선 과정을 포함하여 처방받은 약이 3일 후 배송되는 서비스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도 진행되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설치된 장비들은 회수하지 않고 의사 진료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주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섬코디네이터와 함께하는 가고 싶은 섬 무안탄도 섬체험단 운영

3월 16일 토요일 무안군 망운면에 자리한 조금나루 선착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시끌벅적했는데요. 무안군에 속한 유인 섬이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탄도로 가기 위한 사단법인 섬즈업 봉사단체가 모여서였어요. 사단법인 섬즈업은 매월 셋째주 국내 유인섬을 한 곳씩 선정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섬 해양쓰레기 자원봉사를 잇는 가운데, 3월에는 가고 싶은 섬 무안 탄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다른 섬들과는 다르게 무안 탄도에서는 섬코디네이터와 함께하는 섬 체험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섬에 입도한 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소개를 시작으로 섬코디네이터 역할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세부 일정 공유, 활동시 주의 사항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섬코디네이터가 동행하는 '탄도마을투어'와 함께 '쓰담걷기'가 진행됐습니다. 섬에 지어진 공동체 센터 주변 정리도 함께 진행하여 해변과 산·마을 등 다양한 공간을 중심으로 정화 활동이 진행됐어요. 섬 체험이 이뤄진 후에는 참여자 모두 후기를 공유했는데, 가고 싶은 섬 탄도를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안 탄도는 올해 '가고 싶은 섬 여는 날'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탄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고 싶은 섬이 되길 바랍니다.



섬의 숨은 매력을 찾아주세요. 전라남도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 개최

전라남도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의 섬·해양 자원을 활용, 참신한 관광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2024 전남 섬·해양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남 섬·해양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에서 45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2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공모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전남 연안 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캠핑, 차박, 어캉스 등 체류형 테마여행 코스부터 지역 명소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섬·해양 관광기념품까지 총 5개 분야에 관광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우수 아이디어 20건을 선발해 총 1천2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최우수상 1건에 대해서는 전남도지사 상과 250만 원의 시상금, 우수상 3건에는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상과 각 1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장려상 6건과 입상 10건에도 각각 상장과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입상자에게는 '청춘어람 육성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청춘어람'은 청년이 만드는 어촌관광의 요람이라는 뜻으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고 섬·해양 관광상품을 기획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jeonnam.go.kr)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jnto.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광주in(<https://www.gwangjuin.com>) 기사 인용



2024 섬 수선화 축제' 다가오는 2백만 송이의 봄꽃 향연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신안군 지도읍 선도 일원에서 3월 22일 개최하여 4월 7일까지 '2024 섬 수선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선화 여인'이라 불리는 현복순(91세) 할머니가 30년 전 선도에 정착한 뒤 집 주변에 하나둘씩 심은 수선화가 마을 곳곳을 노랗게 물들게 된 점을 계기로 수선화 꽃밭이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은 현복순 할머니의 노력과 사랑으로 출발해서 선도 주민에게로 전해지게 됐고, 이윽고 모두가 함께하는 정원으로 발전, 한동안 외딴섬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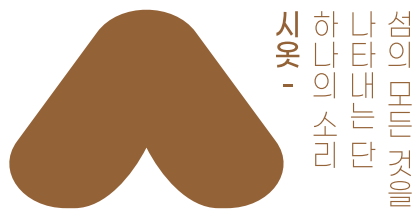


된 선도가 가고 싶은 섬 사업에 힘입어 성공적인 섬 수선화 축제를 매년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식당과 무인 카페, 수선화공원 조성 등 가고 싶은 섬에 관련된 세부 사업 추진이 이뤄진 가운데, 13.4ha에 이르는 면적에 아클, 핼퍼넬을 포함한 17종의 수선화 구근 208만 구가 심어져 2백만 송이의 수선화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봄꽃 향기 속에 노란색으로 물들인 특별한 신안을 볼 수 있으니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입장료는 ▲일반 또는 단체는 6천 원, ▲노란색 옷 착용 시 50% 할인을 받아 3천 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는 무료로 수선화 정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선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 섬 수선화 축제는 지난해보다 더욱더 다채로워졌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더욱 빛내기 위해 주민 참여 조직을 구성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봄꽃의 전령사, 수선화 만나러 선도로 오세요!

※ 신안군 작은섬정원과 조성팀 보도자료 인용



2024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